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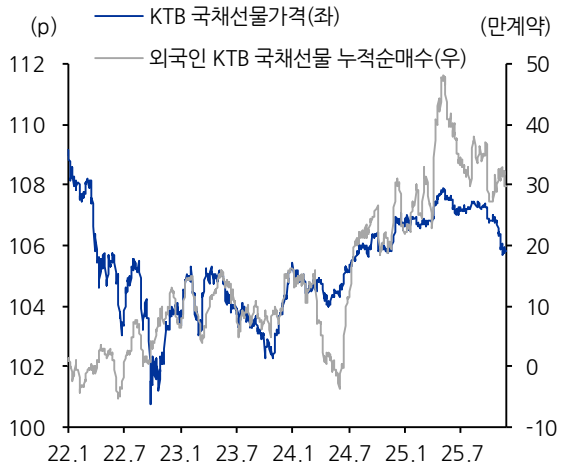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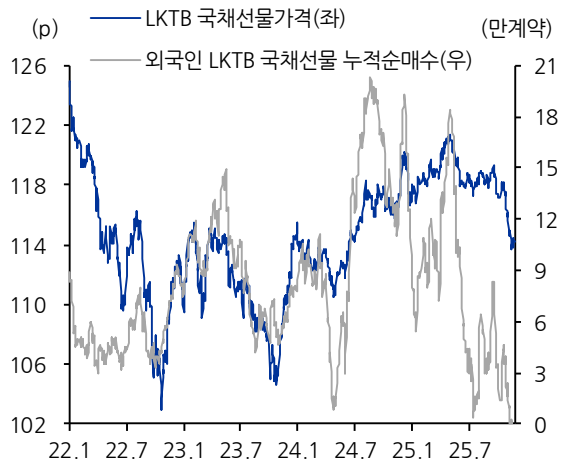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1/2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04%	3.2	-1.0	30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289%	1.8	-1.2	43.4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8.5	39.9	38.7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1	-9.0	3.0	-84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4.18	-19.0	18.0	-27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498%	-0.9	-11.2	-74.1
	미국채 10년물	4.026%	-3.8	-11.4	-54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2.8	55.7	53.0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690%	-1.2	-2.3	32.7
	호주국채 10년물	4.444%	-1.6	-3.3	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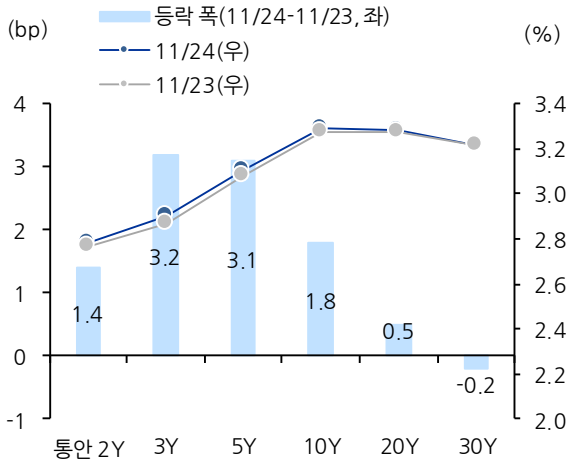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환율 부담 영향.
- 전일 뉴욕 연은 총재 발언과 미국장 강세로 하락 출발한 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와 국고 5년물 입찰 부담 등으로 하락폭 제한되기 시작.
- 주식시장 조정으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리 하락세 이어지긴 했으나, 원/달러 환율이 1,470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원화자산 약세 및 통화정책 부담 등으로 금리 상승 마감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12월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인사들 발언 영향.
- 월러 연준 이사, 노동시장 약화를 언급하며 12월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. 오히려 내년 1월은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 인하 결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발언.
- 오후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노동시장의 취약한 비선형적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하를 지지했다는 것이 또 알려지며 금리 하락세 지속. 미국채 2년물 입찰은 양호하게 종료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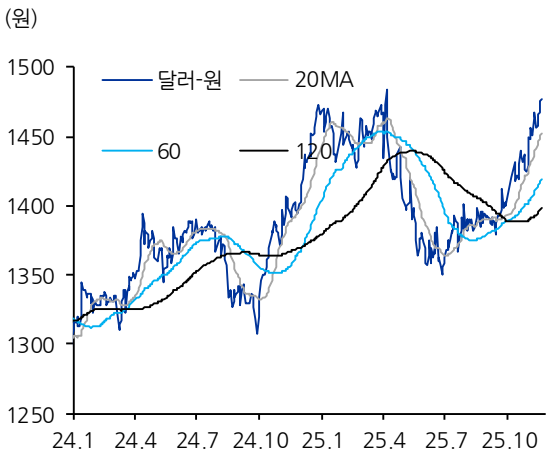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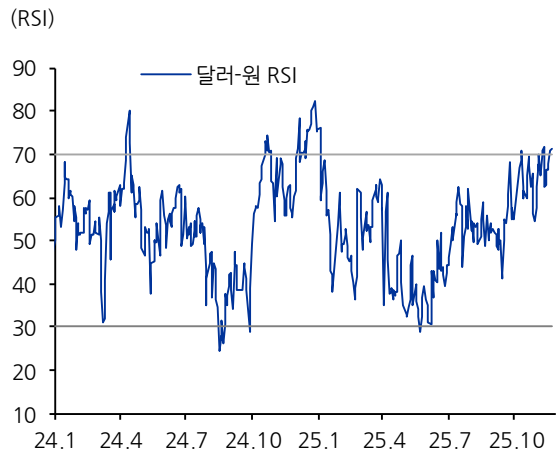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1/2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77.10	0.1%	1.3%	0.3%
	달러지수	100.18	0.0%	0.6%	-7.6%
	달러/유로	1.152	0.0%	-0.6%	11.3%
	위안/달러(역외)	7.10	0.0%	-0.1%	-3.1%
	엔/달러	156.83	0.3%	1.0%	-0.2%
	달러/파운드	1.311	0.0%	-0.4%	4.7%
	헤알/달러	5.39	-0.2%	1.3%	-12.8%
상품	WTI 근월물($)	58.89	1.4%	-1.7%	-17.9%
	금 현물($)	4,132.60	1.6%	2.3%	57.5%
	비트코인($)	88,835.00	5.0%	-3.4%	-5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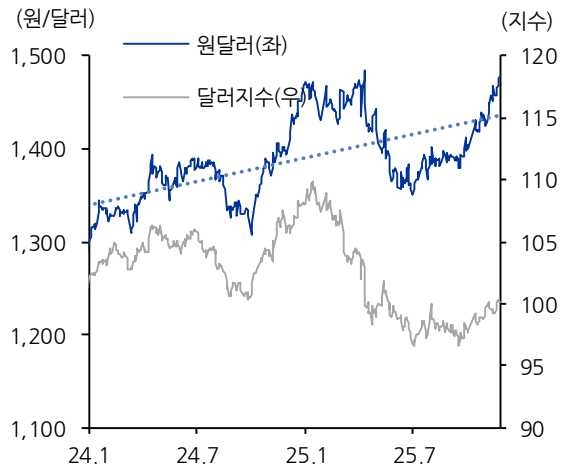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.50원 상승한 1,477.10원에 마감. 종가기준 4/9일 이후 최고치. 야간 거래에서는 1,476.50원 마감.
- 지난 주말 미국 윌리엄스 총재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달러는 하락했고 달러-원은 -3.60원 하락 출발.
- 장초반 하락권에서 횡보했으나, 점차 낙폭을 줄여가기 시작해 오후 들어 상승 전환. 개장 초 +1.6% 가량 상승하던 국내증시는 점차 상승폭을 줄여나갔고 외국인들도 순매도 전환. 높아진 레벨에도 네고 물량 유입도 크지 않았음.
- 이날 장 마감 후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시장 안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발표. 연금 환헤지나 한은과의 스왑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소화하며 횡보세.
-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노동시장이 약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아니며, 9월 고용 데이터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. 최근 줄곧 파월 의장과 스탠스를 맞춰오던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노동시장이 충분히 취약하다며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.
- 11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-10.4로 5개월 내 최저치 기록.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구글 제미나이 3.0 영향에 AI 투심이 회복되면서 나스닥이 +2.6% 급등.